

소련이해의 '新思考' 이끈다

서점가에 이는 '페레스트로이카' 바람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되면서 이 '크레믈린의 젊은 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히 전세계적인 것이라 할 만했다. 더욱이 '인간적인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이념 아래 그가 단행한 일련의 개혁정책은 '재건'을 뜻하는 러시아어 '페레스트로이카'를 국제적 통용어로 만들면서 급기야 베를린 장벽의 철거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동구권의 개혁 움직임에 도화선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이달 초 개최됐던 소련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를 통해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포기하는 강령을 승인, 앞으로 더 많은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선포함으로써, 그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서방세계를 겨냥한 일종의 프로퍼간다가 결코 아니었음을 내외에 입증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각종 서적들이 번역·출간되는가 하면, 국내 학자들에 의한 현대소련연구서들도 선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간된 페레스트로이카 관련도서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에 따라 첫째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시사적인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해설서, 둘째 현대 소련사회의 실상과 문제점들에 학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론적 기초를 규명하는 논문집, 셋째 페레스트로이카와 관련된 자료집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중 고르바초프 자신이 직접 저술한 「페레스트로이카」(고명식 옮김, 시사영어사, 1988)는 현재 6판을 거듭하면서 일반독자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책. 소련사회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어 '용기있는 책'으로도 평가받고 있으며, 고르바초프 자신이 서문에서 밝혔듯이 "과학논문도 아니고 프로퍼간다도 아니지만 이 책에 씌어진 결론이나 분석결과는 당연히 일정한 가치관이나 이론적 전제를 갖고 있다"고 함으로써 그의 의도가 사회주의 이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아닌 사회주의의 잠재능력의 극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시대」(알렉산더 달린 외 지음, 진진홍 옮김, 문우사, 1989)는 소련문제전문가인 저자가 대중강좌를 위해 비교적 평이하게 저술한 책. 현재 소련은 사회적, 경제적 낙후 상태에서 곧바로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한 결과, 진정한 사회주의(과학적 사회주의)노선에서 이탈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고르바초프 시대의 특징으로 규정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에 비해 보다 심도있는 학술적 연구논문으로서 페레스트로이카의 실질적인 이론체계를 수립한 고르바초프의 수석경제고문 아간베기안의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적 도전」(김태홍, 장오현 옮김, 우아당, 1989)이 있다. 사실에 기초한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발전 경향을 고찰한 것으로, 스탈린으로부터 물려받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소련 상층부의 의식개혁 문제까지도 다룸으로써 '인간정신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역설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전망」(파르마 데사이 지음, 홍동선 옮김, 범양사, 1989)은 다각적 시각으로 공산체제변혁의 동인에 접근한 현대소련에 대한 해설서로서, 경제학적 관점과 병행한 정치,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실상과 전략을 소상히 분석하고 있으며, 더불어 기득권의 양보를 거부하는 보수파와 오히려 개혁폭의 협소함을 비판하는 진보파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르바초프의 딜레마를 지적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기본전략」(프로그레스 출판사 엮음, 김정민 옮김, 이성과학출판, 1990)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최초로 국제화되어 나타났던 '소련공산당 제27차 당대회' 토론자료집으로서 정치개혁을 위한 국내외 정책에 관한 당의 기본방침과 이에 따른 당강령과 규약의 개정을 촉구하는 고르바초프의 정치보고서를 비롯, 관련 자료들이 수록된 1차적 자료집이다.

그밖에 「아시아 평화를 위해」(북방정책연구소 엮음, 슬라브연구소, 1988)는 고르바초프의

아시아관련 발언집으로서, 그의 傳記와 함께 서부 시베리아 개발에 관한 연설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과도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련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혁신'인 페레스트로이카를 모든 차원에서, 한편의 책으로 충분히 깊이있게 분석,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 작업은 소련에 대한 단순한

현상분석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책들은 대부분 페레스트로이카와 고르바초프에 대한 독자들의 시사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단편적인 번역서들이 주류를 이뤄왔고, 국내 상황에 비추 본격적인 연구서들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편역'의 형태로 조악한 짜깁기식 내용의 서적들까지 서점가에 등장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한계에 대한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사회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인간본성에 일치하는 이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이러한 찬반론의 와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작업이다.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관련서적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적 심화가 요구되며 국내 관련연구자들에 의한 꾸준한 연구활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소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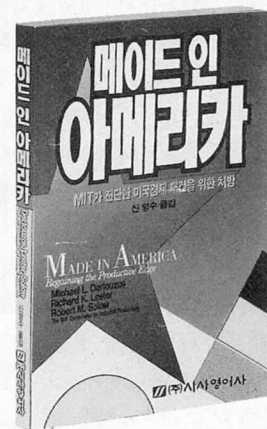
미국경제의 自救策 제시한 보고서

MIT산업생산성위원회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의 경제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는데 MIT대 생산성위원회가 최근 펴낸 「메이드 인 아메리카」(신영수 옮김, 시사영어사)가 번역·출간되었다.

이 책은 1986년, MIT의 과학자, 엔지니어,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산업생산성위원회가 2년여에 걸친 방대한 자료조사를 토대로 미국의 주요 8대제조업-자동차, 화학, 민간항공기, 가전제품, 공작기계, 반도체·컴퓨터·복사기, 철강, 섬유-의 현황을 분석하여 생산성 저하의 근본원인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은 근시안적 시각, 단기적 이익에의 집착, 대량생산 및 국내시장에만 역점을 둔 구태의연한 전략, 인적 자원의 경시, 새로운 연구성과를 상품화하지 못하는 기술적 취약성, 정부와 기업간의 마찰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극복을 위해 국제경제에 대한 획기적 인식전환과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성 향상의 최고의 추진력으로서 기업체 내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개편, 기술전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으로 심각한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경제성장의 원천은 여전히 높은 생산성에 기초한 제조업의 효율적 육성이라는 이 보고서의 결론은 시사해주는 바 크다고 하겠다.